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지하에 있는 재무부실에 신청하십시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과 3일 용인에 있는 심소재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2일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주세요.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 몸이 따뜻하도록. 마음의 옷은 얇게 입으세요. 그 온기 전해지도록

느 8:1~3, 5~6, 8~10 / 시 19 고전 12:12~31a / 눅 4:14~21

단 4:34-37

오늘 식당 봉사 : 최경미 공재량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기분 조장형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황현성 이종배 고정립 김용훈 김기성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지혜 김용규 송 명 박해남 류준모 심호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예언자들이 꾸었던, 예수님이 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을 주십시오. 참된 평화의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주님, 반복되는 한파로 일상이 위협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방비 걱정과 추위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 너무 추위 벌이를 포기하는 거리의 노점상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톨감을 자는 이들, 주님 이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범진 김미현 김성공 전혜민
 김영혜 김윤수 김은정 김정진 김혜영 류준모 심호선 박근혜 박준희
 배재경 이수정 양재성 원용일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광용 형인순
 이근식 신영신 이기분 이민범 공재량 이봉배 이봉옥 이성범 이종배
 고정림 이현순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현모 조경자 최다미 최미자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현선 한규숙 한상균

감사헌금:

김재환 김지선 원주신 이춘재 조두희 무명1

녹색꿈헌금:

구성실 김범진 김미현 김윤수 김인석 이선화 김정민 이해령 송 명
 최철수 광권희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윤하 박시내 허호범 무명2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광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십시오.

아멘. 끝 모를 두려움에 빠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의지해 기쁨의 노래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이범석 목사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의 장로	한준혜 선생 박홍재 권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이근식 홍복선 신영신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시민교육 : 도덕적 · 비도덕적 감정

루소는 인간의 본래적 허약성에 대한 배움을 자신의 교육 이론 전체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인간의 본래적 허약성을 인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인간다움의 가치로 향하게 한다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그 ‘부적합성’ 이야말로 공동체다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소에 따르면 프랑스의 귀족은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 즉 그들은 자신이 평범한 운명의 인간들 이상의 삶을 살 존재라고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강함(비허약성)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바로 다른 이들 위에 안하무인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회들은 루소 시대의 프랑스 귀족이 배웠던 악독한 것, 바로 그것을 가르친다. 사회적 · 가족적 규범 양자를 통해 그 사회들은 완벽함 · 강함 · 지배야말로 성공한 삶의 핵심 요소라는 메시지를 가르친다.

... 그렇다면 희망은? ‘내적 투쟁’의 밝은 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공감적 관심의 능력이 아이들에게서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 타인에게 관심을 느끼는 이러한 능력, 상상적 관점에서 공감하며 반응하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진화 유산 중 중요한 일부분이다.

... 입장 전환의 사고는 공감이라는 감정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공감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과 연결된다. 대니얼 뱃슨의 놀라운 실험 연구는, 어떤 이의 곤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곤경에 처한 이와 자신 간의 거리를 두고 ‘듣기만 한’ 이들보다, 훨씬 더 공감 어린 반응을 보이기 쉬움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더욱이 공감 어린 감정과 함께 반응했던 이들은 그 타인을 도우려고 한다. 만일 그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너무 높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 경우라면 말이다.

종종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관점 전환의 경험을 통하여, 공감 또는 컴패션 능력을 발전시키는 어린아이는 이제, 점점 더 자신에게 소중해져가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공격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챈다. 그리하여 아이는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과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깊은 공감이 그 자체로 도덕성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성의 핵심성분들을 공급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이 발전하면, 그 능력은 자신의 공격성을 제어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욕구를 유발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지닌 별개의 존재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므로 이러한 인식은 으레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을 타인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세계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원하는 이들로 만드는 감정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가정 양육은 아이로 하여금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가지도록,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의 임자로서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다. 사회적 규범, 성인다움이나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 통념적 이미지가 그러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 어려움과 불안이 따르겠지만, 훌륭한 교육은 그러한 상투적 사고를 분쇄하는 동시에, 깊은 공감과 상호 호혜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 타인의 관점, 특히 사회가 ‘물건’보다 덜 중요하게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타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개발하기.

-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중에서